

서귀포시 동흥~서흥동 1.5km 도시우회도로 사업... 서귀포학생문화원 소나무 숲 존치 갈등 “숲 살려야” vs “노선 변경하면 더 문제”

시민단체 “휴식처이자 100년 된 숲 사라질 위기” 도 “당초 계획보다 존치 소나무 41 그루까지 확대”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1.5km 구간에 포함된 서귀포학생문화원 일원 소나무 숲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 도로를 조성하되 온전한 숲 보전을 요구하는 반면에 제주도에서는 노선 변경 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가능한 많은 수량의 소나무를 존치하면서 예정대로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서미모)’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서녹사)의 응모로 오는 9월 ‘서귀포 동흥동 100년 숲과 잔디광장’에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 공동 주최하는 ‘이곳만은 지키자’ 현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 등을 거쳐 ‘올해의 꼭 지켜야 할 자연, 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민간 차원의 보전 운동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앞서 ‘서녹사’

에서는 2019년부터 도시우회도로 개설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숲을 보전을 주장해 왔다.

‘서미모’ 관계자는 “도시숲법에 선 도시숲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휴식처인 100년 된 숲이 사라질 위기다”라며 “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우회해서 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제주도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 800m 구간에 대해 가설 방음벽 추가 설치 등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면담한 ‘서미모’ 측에서 소나무 숲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제주도에서 파악한 숲의 소나무는 총 100그루로 수령은 60~8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회해서 도로를 낼 경우 기존 주거 지역과 종교 시설 등이 있어서 사실상 힘들다”며



도로 개설에 따라 보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서귀포학생문화원 소나무 숲. 진선희기자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소나무는 애초 19그루 정도 존치할 예정이었으나 그 수를 최대한 늘려 41그루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도시우회도로 차로를 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인

만큼 학생문화원 부근은 특히 인도를 폭을 최대 13m까지 확보해 가로수를 당초 계획보다 280% 이상 늘리는 등 주변 보행·녹지 공간 면적도 지금의 소나무 숲, 잔디광장보다 넓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휴담 소나무’ 지키며 통학로 개선 방안 찾는다

오는 5일 ‘서귀북초 휴담숲로 보행 환경 개선안’ 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북초등학교의 안전한 등·하굣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댄다. 오는 5일 예정된 ‘서귀북초 휴담숲로 보행 환경 개선안’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서귀포시 서흥동 현안 중 하나인 서귀북초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제주도교육청 등은 그동안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통해 서귀북초 북쪽 울타리 인접 도로에 대한 어린이 등 보행

자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도로엔 1910년쯤 식재된 것으로 전해지는 ‘휴담 소나무’가 늘어서 있다. 마을에서는 나무가 심어진 유래를 들어 ‘휴담 소나무’가 “운치있고 온화한 기풍으로 마을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긴다. 서귀북초와 인접한 도로 서측에 설치된 ‘휴담 소나무’ 안내판에는 그 일원에 96그루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산림청의 ‘아름다운 마을 숲’에 선정되는 등 마을의 명소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도로

폭이 협소한 상황이지만 마을의 사연을 품은 소나무 존치를 전제로 통학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김광수 교육감이 지난 2023년 9월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 답변에서 서귀북초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으로 소나무 제거 입장을 꺼낸 것에 대해 마을회에서 반발했던 이유다.

이번 ‘서귀북초 휴담숲로 보행 환경 개선안’은 제주도의 공공건축 사업으로 마련됐다. 안전정책 부서에서 장기 과제로 일방통행로 지정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건축경관 부서에서 우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제주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3개월령 이상 반려동물 대상

제주시는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총 1600마리 분의 백신을 읍·면·동 29개소 지정동물병원에 공급해 상반기에 접종하지 못한 보호자들에게도 접종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엔 구좌지역까지 지정 동물병원이 확대됐다.

지원 기간에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접종료 5000원을 부담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알림

한라일보는 JDC와 함께 올해 ‘청소년 캠프’를 총 4회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2차 참가자 모집

● 9월 13일 (토) 오후 1시~4시

▶ 신청 기간: 9월 2일(화) ~ 12일(토)까지
▶ 접수 방법: QR코드 또는 접수 링크로 연결

{ 3차 9월 20일(토) }
{ 4차 9월 27일(토) }

▶ 신청서: <https://forms.gle/h1vSm5VipbQS35n97>
*선착순 접수인만큼 신청 후 확인 문자 요망

▶ 대상: 도내 초등학생 (3~6학년)
▶ 모집 인원: 각 20명 내외 (선착순 마감). 참가비 무료 (간식 제공)
▶ 교육 내용: 제주를 보드게임으로 탐색하기!
1차시 제주 신화 / 2차시 제주 환경 / 3차시 제주 역사 / 4차시 제주어

▶ 문의: 010-2077-1141

한라일보 · JDC

한동·평대 해상풍력 공사 본격화

지구 지정 8년 만에... 110MW 규모 발전단지 조성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공공주도 해상풍력인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지구지정 8년 만에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올해 처음 신설된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 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입찰용량은 689MW(4개소)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입찰하는 한동·평대해상풍력 110MW가 포함됐다. 정부의 해상풍력 경쟁입찰은 20년간 생산 전기를 일정 수준의 고정가격으로 매입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와 공동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은 금융비용 조달이 가능해져 개발행위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은 제주

에너지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 110MW급(해역면적 5.63km²)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59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015년 제주도로부터 한동·평대해상풍력 발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아 후보지 마을 선정,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무리했고 지난 2023년 5월 공동사업자 선정, 2018년 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을 밟아왔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의 금융비용 조달을 위한 정부차원의 장기 고정가격계약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장기 간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시, 97농가에 경관보전직불금 4억여원 지급

제주시는 올해 경관보전직불제 준경관 초지 직불금 4억4400만원을 97농가에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지역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개선하고, 이를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지급 단가는 ha당 45만원이다. 올해 경관보전직불제 준경관 초지 지급 대상은 지난해 선정한 17개 지구 중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1152ha다. 문미숙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불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